

**[H 갤러리] APRIL COLLECTION**

**4. 1. – 4. 30.**

**PHILIP. HAN.**

Linda Alexander ROI.

5. 1. 토.



Poppy and Bee

별과 꽃이 아끼고 보듬고 위로하며 위안주는 안아주고 부둥켜안으며  
친절하고 아름답게 있는 힘껏 정성을 다하며 진심으로 다가가서는 이 말  
'사랑해' 한 마디는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유혹의 5 월을 보내겠습니다.

## 5. 2. 일.



white rose

[lindaalexander.co.uk](http://lindaalexander.co.uk)

오월은 꽃 구경 꽃 향기 꽃 자태 꽃봉 열리는 소리 듣습니다.

### 5. 3. 토



[lindaalexander.co.uk](http://lindaalexander.co.uk)

꽃 구경 하세요. Linda Alexander ROI 작가가 수 놓은 장미입니다. 이 작가 작품 특징은 꽃잎에 쏟아지는 빛의 파노라마 질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사와 같은 이 네 작품 모두 갤러리에게는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월 내내 꽃과 함께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데 이름 뒤 ROI는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본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은 분명 아닐겁니다라고 했더니 한 분께서 Royal Institute of oil painters의 약자 표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 5. 4. 화.



Pink Peony

Pinterest

Linda Alexander 이 작품 Pink Peony, 섬세한 꽃잎 질감을 표현하고자 한 린다 마음속 깊이 빠져든다. 나는 뇌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이 아름다운 빛의 파노라마가 수놓은 절정에 내 온갖 것을 맡겨도 여한이 없다. 이 작품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순간 내 마음이 어질러질지라도 지금 무아지경인

나를 꺼내고 싶지는 않다. 꽃으로 살고 싶다는 말은 내 생애 처음이다. 그 사람이 이 꽃처럼 내 앞에 있다면 사랑해라는 말 역시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야 꽃봉 터트리듯 하니 목이 멘다.

## 5. 5. 수.





Golden Rose



[lindaalexander.co.uk](http://lindaalexander.co.uk)

어린이에게 꽃을 ...  
어린이에게 레몬을...  
어린이에게 창조를...



## 5. 6. 목.



Still Life with Anemones

[lindaalexander.co.uk](http://lindaalexander.co.uk)

Linda Alexander 작가 정보는 좀처럼 찾을 수 아니 내가 못 찾고 있다.  
작가 홈페이지에서 [priorybrodway.com](http://priorybrodway.com) 과 [adrianhillfineart.com](http://adrianhillfineart.com) 갤러리 두  
곳에 작품 전시 중이라는 안내만 찾았다. 또한 린다 작품 경향을 빛의

파노라마를 질감으로 표현한 꽃 시리즈와 최근 정물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할 뿐이다.

정물화라고 하면 '한 알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선언한 사과 정물에 몰두한 폴 세잔이 떠오른다. 세잔 작품에 영감을 받고 쓴 글이 있어 다시 읽어도 봤다( <https://blog.naver.com/hfeel/221289732295> ). 한 사람 더 생각이 났다. Zbigniew Kopania(1949 ~ , 폴란드)이다. 작년 이맘때 즐겨찾기 한 작가이다 ( <https://blog.naver.com/hfeel/221955827234> ).

이 세 작가 정물화는 특징이 교차한듯 비껴간 듯 해 감상이 삼삼하다. 세잔의 사과 정물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기존 정물화 규칙과 제도에 반기를 든 것으로 당시 청년에게 그리고 싶은 것을 맘껏 그리라는 미술의 본질을 일깨웠다 하여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갖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세잔 그림을 즐길 이유이다.

코파니아 정물은 세잔의 사과 정물에서 볼 수 있는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과 한 알 느낌을 받곤 한다. 반면 린다의 정물은 자로 잰 듯한 균형과 고요가 있다. 건축가이면서 화가인 린다이기에 추구할 수 있는 정물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린다의 정물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 저 말에 잘 휘둘러 속상하고 팔랑 귀 소리를 듣고 있다면 린다의 정물화를 명상화로 삼으면 제법 효과가 있다.

## 5. 7. 금.



Three-Chinese-pears

[sarahcaswell.co.uk](http://sarahcaswell.co.uk)

한때 비가 세차게 쏟아지길래 여기서 끝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참 이런 막연함만큼 헛된 것도 없는데도 비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길래 문 앞까지 왔구나 싶었다.

심란한 마음이 찾은 곳은 제레미 미란다 명상화 보다 린다 알렉산더 정물화였다. 안정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러 작품을 훑어보다 하마터면 박장대소할 뻔한 작품이 바로 Three Chinese Pears 이다.

못난이 삼 형제 인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는 모습, 웃는 모습, 찡그린 모습 세 표정은 집안 어디든 있었고, 세 인형 표정으로 하루 일과를 설명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갓난 애 시기 유일한 메시지 수단인 내 자화상이란 생각도 들었다.

정물화에서 이렇게 추억을 보듬으며 나를 볼 줄이야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이다. 비로소 마음이 차분하다. 마침 비도 그쳐 하늘이 세 배 마냥 맑아졌다.

## 5. 8. 토.



Quails Eggs. 2020.

[mallgalleries.org.uk](http://mallgalleries.org.uk)

사랑. 창조. 애정. 성실함. 애씀. 하염없는. 소중함. 가치. 금쪽같은. 돌봄. 정의. 자신감. 행복. 희망. 소망. 밥먹었니. 소원. 기도. 행운. 신뢰. 믿음. 대화. 웃음. 열정. 즐거움. 신남. 상쾌함. 유쾌함. 아름다움. 열심히. 진실. 진심. 순수. 희생. 잘할수있다. 거봐해냈잖아. 다음에더잘하면됨. 꾸준히. 성심을다해. 아껴야지. 나눠야지. 욕심내지말고. 우정. 최고. 끝까지달려. 마음껏해봐. 자유. 있는힘껏. 마음곱게. 사모함. 애정. 감사. 은혜로움 ...

부모님을 떠 올리면 생각나는 낱말 100 개를 채우지 못하네요. 평생을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날이어서 그랬는지 린다의 이 작품이 왠지 어린 시절 두 동생과 나들이 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 5. 9. 일.



White Peonies in a Green Bowl

[mallgalleries.org.uk](http://mallgalleries.org.uk)

이 작품 첫눈에 띠는 부분은 꽃보다는 꽃병이었다. 특별한 꽃병여서 그랬다기보다 매우 매우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월 이맘때 부는 바람이 꽤 쌀쌀맞아 내 마음이 요동쳐 그랬을 수도 있다. 시선이 점점 큼지막해졌을 때 비로소 흰

작약 꽃이 한눈에 들어왔다. 매혹적 유혹적 고희적인 느낌이 연달아 쉴 새 없이 반복하는 데 이 흑함을 어찌할 바 모를 지경이다. 아마도 말이다 어찌면 말이다 그 사람 이 해는 이 내 느낌으로 피어 있는가 싶다. 그 모습 보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처방전 마냥 그 사람 답장받고서야 훌훌 털어냈다. 이 사연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흰 꽃 작약으로 활짝 피었는가 보다. 그 사람 매일 매일 참 예쁘다.

## Milton Avery(1885 – 1963, 미국)

### 5. 16. 일.



Dunes and Sea II. 1960.

[whitney.org](http://whitney.org)

Milton Avery(1885 - 1965, 미국) 작품이 눈에 들어온 까닭은 꼭 필요한 대상을 캔버스에 담은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다. 면 분할을 곡선으로 한 탓 같았다. Mark Rothko 면 구성과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한데 이런 내 생각은 추론이지만 사실에 근접한다. 밀턴과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가 바로 로스코이기 때문이다. 밀턴 추도사 중 로스코는 그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했고, 젊은 예술가에게 밀턴 작품은 '앵커'가 될 것이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음파를 발명한 시인'이라며 애도했다. 실제 밀턴 에버리 작품은 로스코와 교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직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밀턴은 Henri Matisse 칼라 감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니멀리즘을 회화에 도입한 작가라는 점은 깊이 공감하는 바다. 이 감각을 탁월한 평온 감이 밀턴 에버리 작품 특징이라는 점 또한 내 마음을 잣아들게 한다.

## 5. 17. 월.



Dark Inlet, 1963

waddingtoncustot.com

Color Field Painting, 1940 년 대 Mark Rothko, Barnett Newman, Clyfford Still 등이 개척한 추상화이다. 신화적인 예술 · 무한에 대한 열망을 추구한다는 컬러 필드 페인팅은 형상을 포기하고 갤러리를 단번에 감싸 안는 표현력에 집중한다. 원시적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한데 밀턴 에버리 컬러 필드 페인팅은 원시적 감정에 지친 영혼을 끌어안는다. 면 분할과 선은 마치 어머니 손처럼 앓고 있는 배를 문지르는 듯 따듯하고 안온하다. 바넷 뉴먼이 '화가는 공간 안무가'라는 말로 컬러 필드 페인팅은 공간을 경험하는 예술이라고 했다.

반면 밀턴은 이 공간 속 혼돈을 잠재우는 평온함을 안겨주는 신 아폴로 Apollo 랄까. 해서 그런지 로스코와 에버리 간 친분이 깊었던 것이 서로 다른 지향점이 시너지를 낳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모르긴 몰라도 싸우기도 적잖이 싸우고 화해하고 그랬을 것도 같다. 화해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요즘 주목받는 메타인지(자신의 감정을 객관적화 하는) 방법을 따랐을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 짐작건대 에버리라는 느낌이 든다. 이 두 거장 작품을 보며 싸움 붙었다 하는 내 상상력이 즐겁다. 비가 그치면 땅이 굳는다는 말이 마치 에버리와 로스코가 화해하는 모습 같아 그냥 막 웃었다.

5. 18. 화.



Morning Sky. 1962.

[victoria-miro.com](http://victoria-miro.com)



Mark

Rothko. Untitled. 1953.

[mcgawgraphics.com](http://mcgawgraphics.com)

theartstory.org 에서는 Milton Avery 여러 작품 중 Moring Sky(1962)을  
중요 작품으로 꼽았다. 그 까닭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Mark Rothko 를 떠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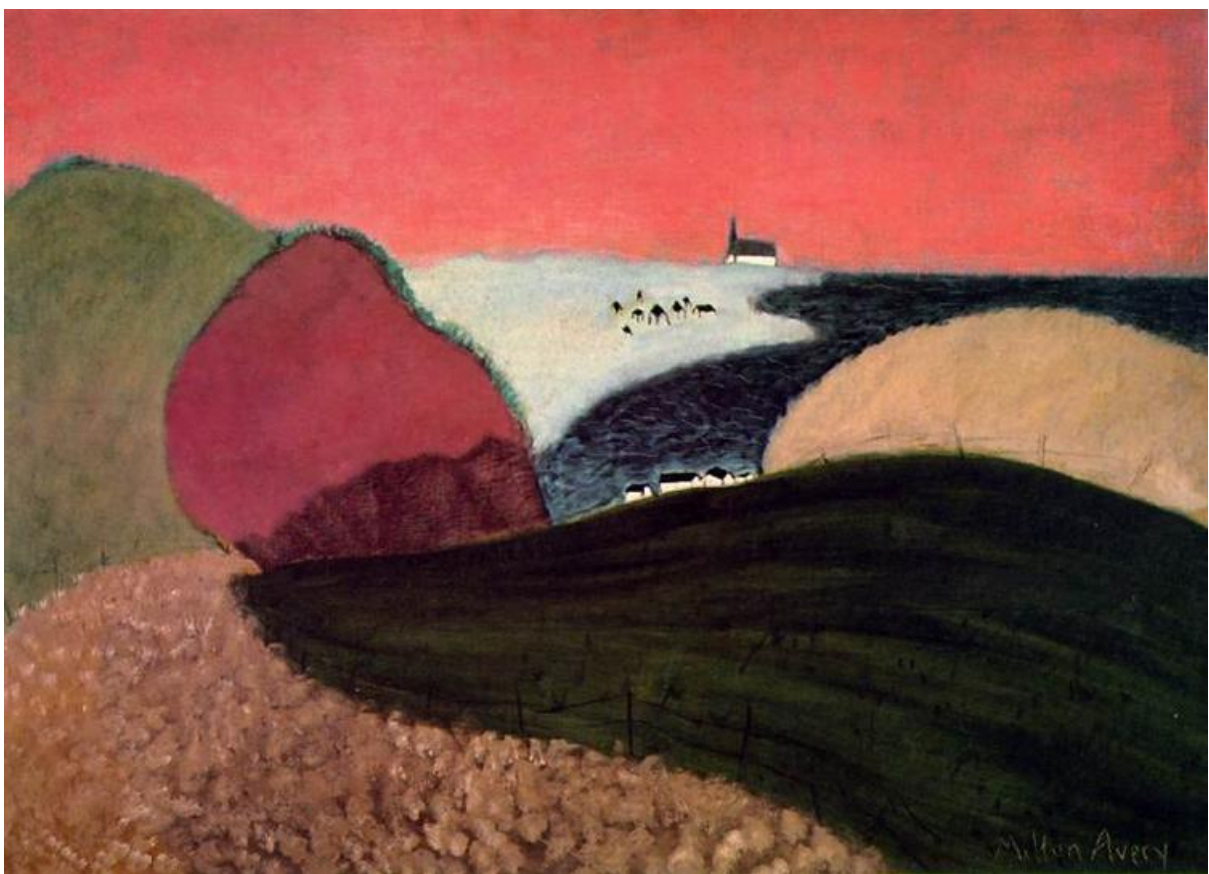
한데 다른 점이 있다. 마크 로스코의 Color Field Painting 은 호방함과  
웅장함 속 원시적 감정을 끄집어내는 찌릿함이 있다. 반면 밀턴 에버리

작품에는 평온함과 산들산들한 바람이 부는 듯 섬세하다. 게다가 로스코 작품에는 서사가 없다. 에버리 작품에는 분홍 태양빛이 어둠을 살라 먹으며 솟아오르는 상상하는 재미가 있다.

두 작가 생애 내내 있었을 법한 우정 사랑 연민 애증 질투 화해 탐닉 거짓말 진실 등등 그 속사정 모두를 알 길은 없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교류하며 나눈 대화와 토론 내용 등이 서로의 작품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영감을 주고받았는지는 갤러리 몫일 것이다.

그런 탓인지 두 작가가 남긴 작품을 마주할 때면 두 거장과 차담을 나누는 듯한 착각을 하곤 한다. 눈을 감으면 둘의 대화가 들리고 눈을 뜨면 두 사람이 주거나 받거나 한 대화가 작품이 되어 있다.

## 5. 19. 수.



Gaspé pink sky. 1940.

밀턴 에버리(Milton Avery, 1885 - 1965)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 - 1970) 두 작가가 언제 처음 만났고, 둘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다. 고흐와 고갱 같은 사이였을까 아니면 구스타프 클림트가 아낀 에곤 실레와 같은 관계였을까. 로스코 명성이 자자하고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는 탓에 에버리 존재감은 마니아가 아니면 잘 모를 것이다. 나 역시 이번 참에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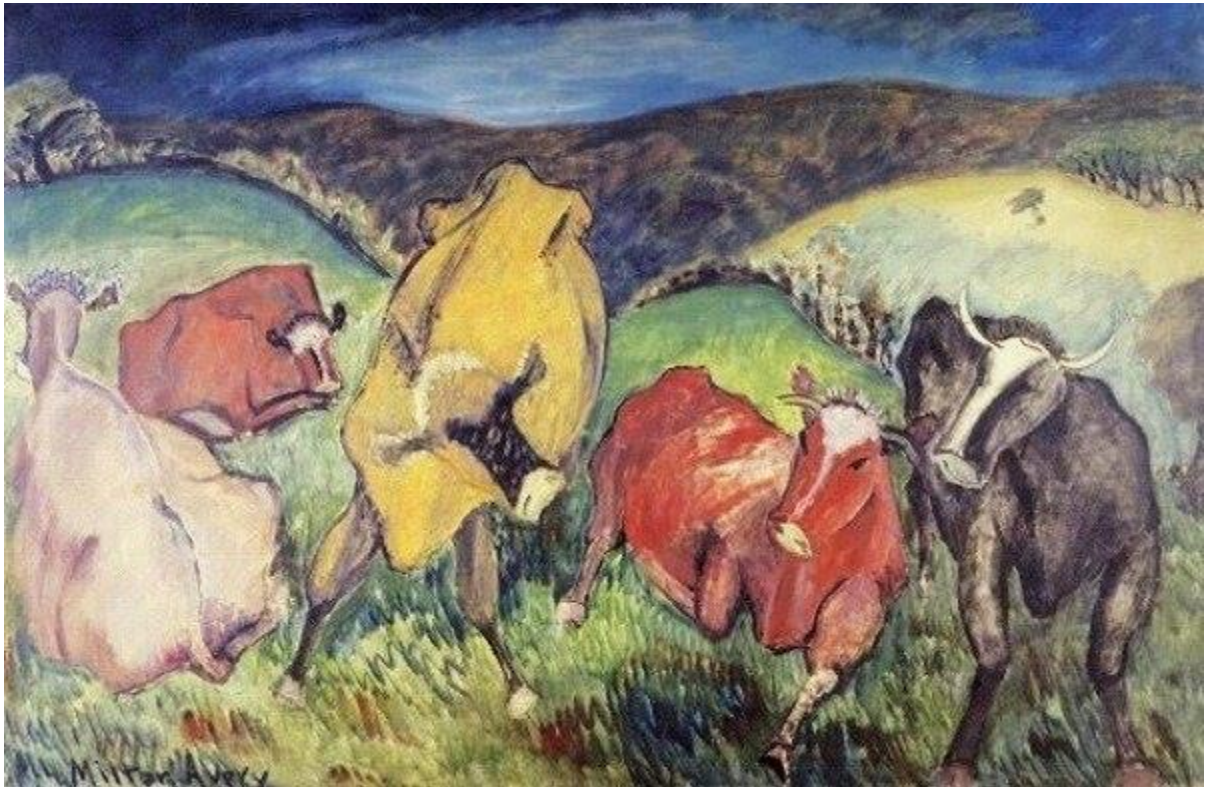
하지만 둘 간 어떤 대화가 오갔고 주고받은 편지는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찾진 못했다. 전문가 흉내 내다 가량이 찢어질 뻔했다. 그러던 중 1940 년 이 작품 Gasppe Pink Sky(1940)를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다. 뉴욕 코네티컷에 사는 에버리가 어떤 이유로 방문한 캐나다 퀘벡 가스빠 반도를 그린 작품으로 추정된다.

한데 이 작품은 이전 에버리 작품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이 작품부터 Color Field Painting 경향을 본격적으로 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작품 이전 어떤 작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50 년 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마크 로스코라면 이 시기 두 작가는 Sunset 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Color Field Painting 을 연구하고 탐구한 시기는 아닐까 싶다. 흥미로운 점은 마크 로스코는 나이가 들면서 원시적인 감정을 끄집어낼 듯한 칼라감이 점점 어둡고 모호한 톤으로 변한 반면 에버리는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답고 고운 색감을 유지한 점이다.

에버리의 이러한 점을 들어 Henri Matisse 색감을 확장했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직까지는 없다. 마크 역시 에버리를 애도하며 젊은 예술가에게 '앵커'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현대 미국 회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손색이 없다는 뜻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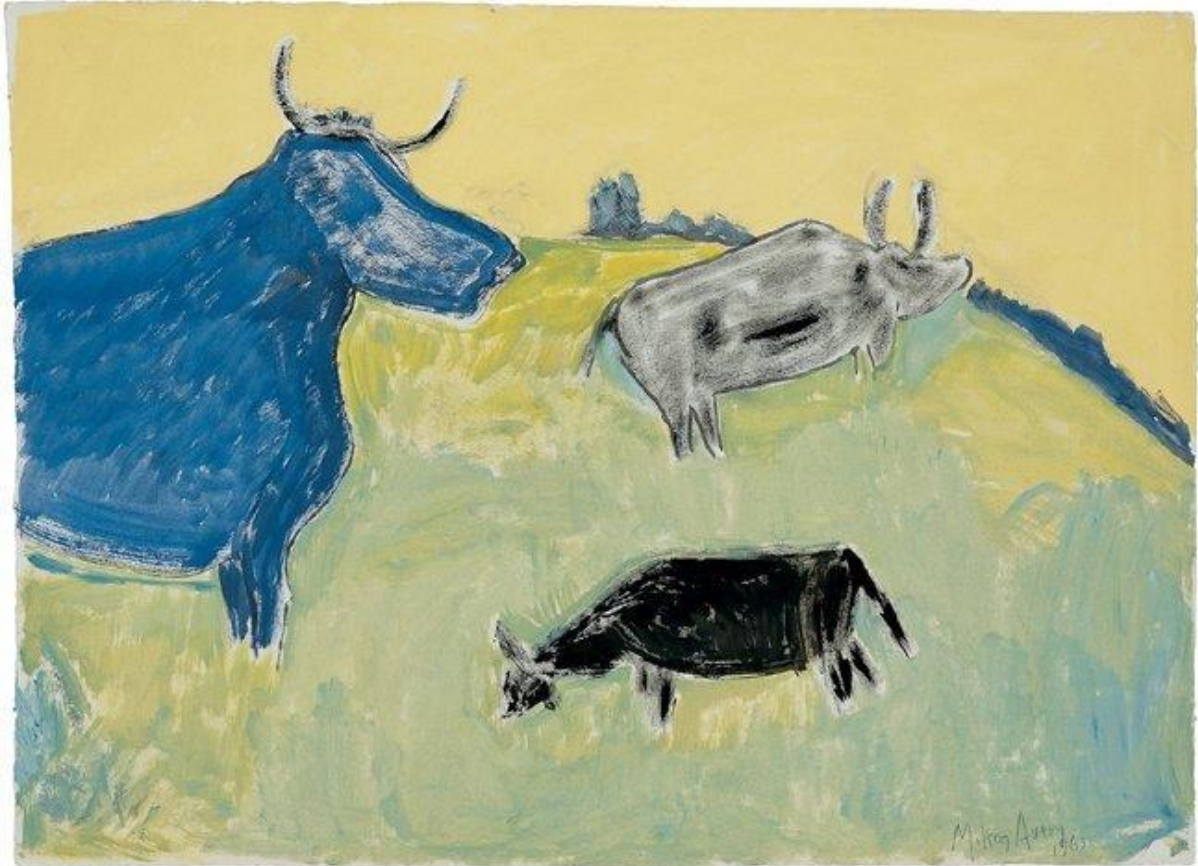
5. 26. 수.



Bucolic Landscape.1930



Landscape. 1945



Blue Bull, 1963

wikiart

waddingtoncustot.com

한 블로거 얘기는 Milton Avery(1885 - 1965, 미국)는 소를 그린 것이 아니라 풍경을 그린 것이라며 여차저차 얘기를 한다. 그 꺼리는 내 관심사가 아니었고 해서 서둘러 나왔다.

한데 궁금했다. 에버리는 정말 소를 그린 것이 아니고 풍경을 그린 것일까. 유일한 단서는 작품 이름이다. Blue Bull(1963) 작품을 빼곤 풍경을 그린 것이 맞는가 싶다. 그 블로거 얘길 더 들어볼걸...

내가 이 세 작품을 골라 보는 까닭은 10여 년 주기로 에버리 작품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누굴 만났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상상하기 위해서다. Bucilic Landscape(1930)는 에버리 초기 작품였을테고



Landscape(1945)는 마크 로스코와 교류를 하던 시기였을 것이다. 사실적 풍경이 면과 선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비단 로스코로부터 받은 영향이고 영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theartstory.org 는 마스덴 하틀리(Marsden Hartley. 1877 - 1943, 미국),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 - 1986, 미국), 아돌프 고틀립(Adolph Gottlieb. 1903 - 1974, 미국),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 - 1970, 미국) 등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직관적으로 에버리 추상성은 하틀리와 고틀립으로부터 컬러 필드는 뉴먼과 로스코,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은 오키프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은 것 같았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작가는 Henri Matisse 색감이다. 이 세 작품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꼼꼼히 파헤쳐보면 당시 이 작품을 그렸을 때 누구의 영감을 받았는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화폭을 서로 뛰쳐나올 것 만 같은 색감이 차츰 단색으로 풍경과 어울리려 하고 마침내 작가 자신의 세계관을 완성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은 듯했다.

Blue Bull(1963) 오래전부터 에버리는 사실 풍경을 그리려고 했다기보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평생을 두고 탐구한 자신만의 삶의 결론 같았다.

## 5. 27. 목.



Mother and Child by the Sea. 1944.

lamodern.com

딱히 꼬집을 순 없지만 Milton Avery(1885 - 1965)에게 1940 년 대는 특별한 사건이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은 바로 Mother and Child by the Sea(1944)이다. 수채화가 드물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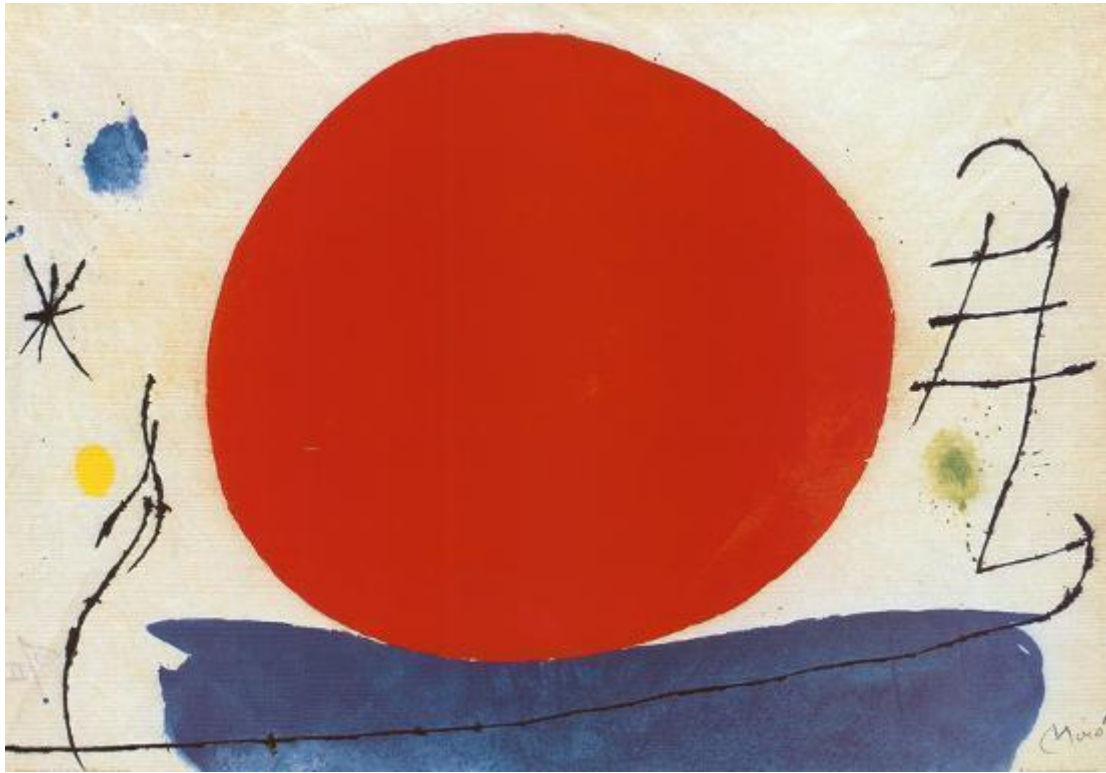
게다가 Color Filed Painting 서막을 알리는 것도 같았기 때문이다. Los Angeles Modern auction 은 이런 에버리 작품 경향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America Matisse 라고 치켜세웠고, 표현력은 포비즘(Fauvism)을, 색상은 주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인상파가 선호하는 미묘함을 즐겼다고 했다.

그 결과 미국 모더니즘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다. 마크 로스코가 에버리를 미국 현대 미술사 '앵커: 정신적 지주'라고 한 말은 허언이 아닌 셈이다. 또한 세밀한 고요함은 이후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사실을 걷어낸 독특한 서정이고 에버리만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 모든 평을 이 작품이 다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작품 1944년을 기점으로 에버리는 자기 고유성을 맘껏 드러내려는 첫걸음 같았다. 이는 우연히 본 아내 샬리와 딸 마치의 행복한 한 때를 지키고 싶은 가장으로서의 각성이 작용한 것 같았다. 유화가 아닌 수채화를 선택한 것이 당시 에버리 경제력을 가늠할 단서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가족을 간직하고픈 한 가장의 최고 사랑과 희망을 이 작품에 오롯이 남긴 듯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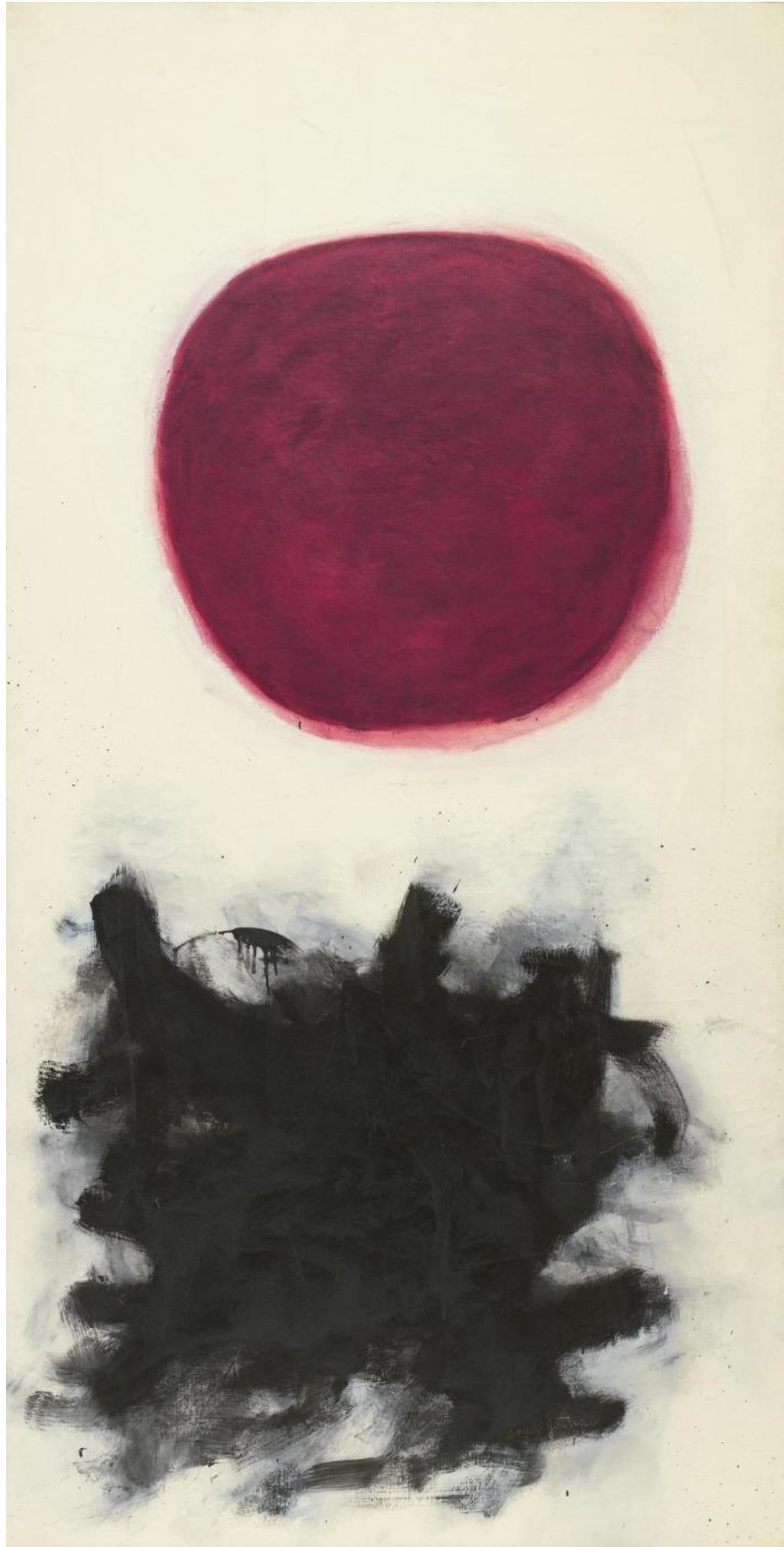
5. 29. 토



Joan Miro. RED SUN. 1950.



Milton Avery. RED SUN. 1957.



Adolph Gottlieb. BLAST. 1957.

mutualart.com

Milton Avery(1885 - 1963) 작품 경향은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추상 Abstract Expressionism 과 컬러 필드 페인팅 Color Filed Painting 이 그것이다. 이외 경향도 있겠지만 이 두 종류만으로도 에버리 작품 감상은 차고 넘친다. 컬러 필드 페인팅은 마크 로스코 작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추상은 아돌프 고틀립(Adolph Gottlieb. 1903 - 1974, 미국)이다.

에버리와 고틀립 둘 사이 역시 로스코처럼 누가 먼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고받았는지 따져 볼 일이지만 에버리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인 것만은 사실인 듯싶다. 에버리 작품은 1950 년 대 들어 컬러 필드에서 추상으로 전환한 듯한 인상을 갖는다.

그중 RED SUN(1957) 작품을 꼽은 것은 이 해 고틀립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 두 작품을 비교하면 흥미롭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아돌프 고틀립 1957 년 작품 BLAST 이다.

이 두 작품이 어떤 관계성이 있다면, 둘 중 누가 먼저 소재를 선정했고, 그림을 완성했을까. 그 자세한 속사정은 사실 잘 모르겠다. 한데 호안 미로(Joan Miro, 1893 - 1983, 스페인)가 떠 올랐다. 당시 추상화 선두주자였고, 주목받고 있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미로 작품 중 RED SUN(1950)이 있다.

이 작품에서 에버리가 영감을 받고 또는 작품 명에 이끌렸는지 이 역시 잘 모르겠다. 다만 세 거장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보니 1950 년 대 회화의

한 광장에 서 있는 듯한 황홀감이 온몸을 휘감는다. 붉은 태양 기운을 옴팡 쓰고 나니 뇌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 Epilog

이 해 5월은 유난히 비 많이 온 달로 기억할 것 같다.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눈을 뜨면 말간 날이었다. 반팔 옷이 선선한 것만 빼곤 꽤 괜찮은 날이 많았다.

Linda Alexander 꽃 작품으로 시작했다. 세월 맞이가 깊을수록 꽃을 좋아 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꽃은 요식 거리였다는 점이 아쉬웠을 뿐이다. 해서 올 해부터는 엄마 자리에 꽃을 심으려고 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쪼그라드는 마음이 잠시 멈췄다. 여러 일정을 쳐내며 보냈다. 컨디션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해 고생은 했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현재감이 좋았다. 하지만 새 물결에 올라서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중심을 놓치면 곧바로 곤두박칠 치고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감도 맛봤다.

Milton Avery 작품은 이런 내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감을 쌓아 줬다. 작가의 생애를 하나 둘 알아가면서 숙연함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삶이었음에도 붓 끝으로 희망을 만든 에버리 삶은 아름다웠다.

두 작가로부터 얻은 이 삶의 아름다움을 6월에도 꽃으로 희망으로 피우는 일이 내가 아름답게 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월 내내 응원과 성원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